

# 출장보고서

◆ 일시 및 장소: 2017년 05월 25일 09:00-20:00, 5월 26일 09:30-12:30, 스페인 마드리드 FUNCAS

◆ 안 건: European Social Policy Network Workshop 참석

◆ 참석자: 원외) Mary Daly(University of Oxford), Anton Hemerijck(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Elin Peterson (Stockholm University), Niclas Beinborn (German Research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 Christian Morabito (Save the Children and 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외 40인

원내) 류정희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첨부자료 참고)

불평등과 세대 간 형평성: 초기 아동기 투자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되었음. 특히, 아동돌봄의 맥락에서본 정책디자인과 제도적 framework에 대한 검토, 불평등, 아동빈곤, 그리고 사회적 재분배의 관계성, 세대간 불평등과 취약한 아동을 위한 동일한 기회부여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었음.

## ○ 아동에 대한 조기의 사회적 투자: 정책, 정치, 그리고 결과물

- 사회투자에 대한 전형적인 문제제기

Brian Nolan(2013) “사회투자는 고용친화적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치이론으로서 단순히 이해될 수 없다.”

Bea Cantillon(2013) “사회투자이론은 단일한 전형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행되어 온 일련의 사고들을 의미한다.”

Frank Vandenbroucke(2017) “사회투자에 대한 동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완전히 성숙한 분석 패러다임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 정책패러다임의 정의를 위한 4가지 구성요소

- 정책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원칙적인 정치적 목표
- 원하는 정책결과물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개입에 대한 정치적 이론
- 정치이론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치도구와 실질적인 기술

- Angela Merkel (WEF 2013): “EU는 전 세계인구의 7%를 차지하고 GDP의 25%, 복지지출의 50%를 차지한다. 우리는 경쟁력을 잃고 있다.”

- 유럽의 가장 경쟁력있는 경제는 사회투자를 지지하고 있음.

1. 스위스, 2. 싱가포르 3. 미국 4. 독일 5. 네덜란드 6. 일본 7. 홍콩 8. 핀란드 9. 스웨덴 10. 영국

- 사회투자패러다임의 핵심

장기적으로 강력한 경제, 복지제공은 생산적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며 이는 전 생애주기에 걸친 정책개입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인 배열을 필요로 함

- 생애주기에 있어서의 사회적 위기와 노동시장은 예상가능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음

-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비교

-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서 진보적으로 양극화되었던 패러다임의 이동이 진행되고 있음

- 경제위기 이후 유럽의 교훈

· 비대칭적인 경쟁, 사회적 양극화, 청년실업의 증가는 EU의 거대경제의 유효성에 대한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

· 무조건적인 긴축은 위기조절에 문제가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예산의 강화를 위한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음

· 적극적인 아동 및 가족 친화적 분할되지 않은 복지국가는 보편적 다수를 위한 정책에 효과적일 수 있음

- 남부의 복지시책(연금편향, 이중노동시장과 가족주의)의 부정적인 정책교훈

- 유럽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긴축의 반사작용의 누적적인 실패는 외국인혐오와 우파의 파퓰리즘으로 이어지고 있음.

○ **기회의 균등과 초기아동돌봄과 교육: 대안의 모색**

- 기회의 균등에 대한 정의

· 아동결과는 가족배경, 성별 등 개인의 책임 너머의 상황적 요인과 자유롭고 책임있는 선택이라는 2개의 요인에 의해 결정됨

- 기회의 균등과 초기아동돌봄(ECCE)에 대한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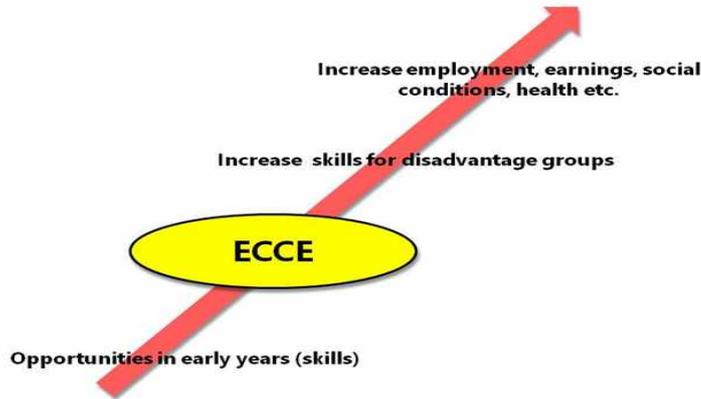
· 지식경제와 사회에서의 기회는 인적 자원과 직결됨

· 미취학기는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에 결정적인 시기

· 신체적 인지적 발달은 아동초기에 불평등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전적으로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음

· ECCE는 성인기의 발달결과가 개인적 노력과 책임의 결과물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의 삶의 결정적인 시기에 개입함으로써 인적자원 개발의 기회를 동등화한다는 점에서 개입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음

- 유럽에서 개입의 효과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근거중심의 ECCE 정책을 추진. Morabito(2017)는 이에 대해 유럽과 모리셔스에서 종단적인 양적 연구 및 질적 연구를 수행



**Disadvantage** (inherited factors: poverty, gender, ethnicity, geography, physical)

- 연구결과는 불평등의 다이내믹스가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보다 결정적이지 않음
- ECCE는 재분배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마법의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음
- 아동과 부모는 교육과 아동기 초기의 개입의 중요성에 가치를 두지만, 또한 구조적인 불평등-교육체계 내, 소득재분배정책, 지역사회개발 등-에 대한 집단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옹호함

### ○ 아동기 초기의 불평등 연구

- UK Millennium Cohort Study의 연구결과

- 2000년-2001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19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취약한 빈곤가정과 England의 소수민족을 과대표집하였음
- 9개월에 최초 조사, 3, 5, 7, 11, 14세에 후속조사가 이루어짐
- 교사에 대한 설문조사는 7세, 11세 때 이루어짐
- 아동의 건강상태, 행동발달, 인지적 능력, 교육적 성과 등을 주요결과변수로 보았으며 빈곤의 효과를 측정하였음
- 빈곤의 효과는 지속적이며 부모의 교육수준 등 다른 결정요인들보다 결정적임
- resilience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소수자그룹에서 빈곤율은 훨씬 높게 나타났음
- 후속연구에서는 중등교에서 나타나는 빈곤효과의 차이성 및 동일성, 아동의 자율성이 극대화되는 시기에 대한 검토, 초기생애경험의 지속적 효과성 검토 등이 필요함.

◆ 일시 및 장소: 2017년 05월 29일 13:00-15:00, 프랑스 파리 OECD Employment, Labour, and Social Affairs

◆ 안 건: OECD의 아동빈곤정책 연구 동향에 대한 논의

◆ 참석자: 원외) Olivier Thevenom박사

원내) 류정희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

1. 최근 수행된 OECD ELS 아동빈곤 연구

○ 최근 10년간 OECD에서는 아동 및 가족정책에 대한 국가간 비교작업을 수행

- Doing Better for Children (2009)

- Doing Better for Families(2011)

- OECD Family Database는 가족 및 아동관련 지표 및 정책 현황을 제시하고 있음

- How is Life for Children (2015)는 가장 최근의 연구로 아동복지 관련 OECD 국가간 비교 및 아동의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별 불평등 현황을 제시하고 있음

- In it together (2015)에서는 소득불평등은 조기인적자본 투자를 약화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저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함을 보여줌. 이에, 아동에 대한 조기의 교육투자와 아동가구에 대한 지원은 아동의 복지뿐만 아니라 사회통합 및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제시.

○ 1980년대 이후 30여년간의 아동빈곤의 추이 및 결정요인 분석

- 아동빈곤의 추이분석

· 2000년대 이후 OECD국가의 대부분에서 아동빈곤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8년 경제위기이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아동빈곤과 관련되는 다양한 인구학적, 정책적 결정요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는 아동빈곤해소를 위한 정책대안 연구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인구학적 요인은 십대임신율의 감소, 가족구성원의 감소(1인가구의 증가),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 동질혼 등의 영향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정책적 요인은 아동수당 제도 등 아동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일가정 양립제도, 주택, 교육 및 의료정책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

○ 복합가족과 아동복지의 연관성, 이에 대한 정책대응

- 결혼하지 않거나, 이혼, 재혼, 동거 등으로 인해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새부모와 살게되는 다양한 복합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복합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형태가 어떻게 아동의 빈곤, 아동의 발달 및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음

- OECD국가들의 아동복지정책은 복합적인 가족의 증가를 반영하고 이에 대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가족유형과 아동발달의 관계성, 가족유형별 부모의 아동양육방식의 차이 등에 대한 연구필요

◆ 일시 및 장소: 2017년 05월 30일 2시-5시, WHO Prevention of Violence 회의실

◆ 안 건: WHO의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Study-International Questionnaire를 활용한 replication study 수행현황에 대한 논의

◆ 참석자: 원외) Berit Kieselbach(WHO Prevention of Violence), Sabine

Rakotomalala((WHO Prevention of Violence)

원내) 류정희 부연구위원

◆ 회의내용:

1. 미국 CDC의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Study에 대한 논의

○ 생애과정에 걸친 학대 및 폭력경험의 중복성, 건강결과와의 연관성 등에 대한 연구는 Adverse Childhood Experience(ACE) Study, The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NatSCEV), Child Abuse Screening Tool-Retrospective version: ICAST-R 등이 있음.

○ ACE(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 미국의 Kaiser Permanente 및 CDC가 주관하여 남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17,000명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 및 현재 건강관련 태도 및 행동에 대한 조사를 수행함.

• 조사는 1995년 및 1997년 2차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CDC는 당시의 조사 참여자 의료기록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이들의 중장기적인 건강상태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함.

• 조사방법: 우편조사(초기 조사), 전화조사(BRFSS 조사 중 ACE 모듈)

- 현재는 전미에서 BRFSS 조사의 일부로 실시되고 있음.

○ ACE Study의 실시

- 198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Kaiser Permanente 클리닉에서 다수의 비만프로그램 중도포기자를 대상으로 인터뷰한 결과, 이들 중 과반이상이 아동기 성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비만은 아동기에 경험했던 성학대와 연관된 우울, 불안 및 두려움 등에 대한 대응기제 중 하나일 것이라 유추

-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DC와 Kaiser Permanente는 1995년 17,000명 이상의 자발적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트라우마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참여자의 50%는 여성, 74.8%는 백인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7세였으며, 전체가 직업이 있었음.

• 아동기 트라우마 유형: 신체적 학대, 성학대, 정서적 학대, 신체적 방임, 정서 방

임, 모의 폭력적 대우, 가정 내 약물중독, 가정 내 정신병력, 부모 별거 혹은 이혼, 가족 중 수감자 등

- 이후 본 조사는 전미에서 매년 실시되는 전화조사인 Behavioral Risk Factor Surveillance System(BRFSS)에 포함되어 실시되고 있음. 2009년도 기준 32개 주와 워싱턴 CD가 BRFSS 조사에 ACE 질문항목을 포함하여 실시하고 있음.

○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음

- 일반항목(성별, 연령, 인종, 교육수준, 근로유형, 혼인상태)

- 혼인이력

- 부모(혹은 양육자)와의 관계

- 가족환경

- 아동기 부정적 경험

• 신체적 학대, 성학대, 또래폭력, 지역 내 폭력, 전쟁 및 집단폭력 등의 경험여부 및 경험빈도

○ 조사결과

- 아동기 트라우마의 경험율은 매우 높은 편임.

•전체의 3분의 2가 적어도 하나의 아동기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전체의 28%가 신체적 학대를, 21%가 성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수가 부모의 이혼 및 별거 혹은 정신장애 및/혹은 약물중독이 있는 부 혹은 모와 함께 거주했음.

- 아동기 트라우마의 경험은 여러 영역에서 중복적으로 나타남. 전체 참여자 중 40%가 2개 혹은 그 이상의 트라우마를 경험하였으며, 12.5%는 더 많은 유형을 중복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아동기 트라우마 경험의 강도가 높을수록 생애전반에서 다양한 건강, 사회적, 행동적 문제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짐.

2. WHO의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Study-International Questionnaire(ACE-IQ)를 활용한 replication study 수행현황에 대한 논의

○ ACE-IQ버전은 ACE 국제연구네트워크를 주도로 중국,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 타일랜드, 베트남 등에서 보다 광범위한 보건 및 건강 실태조사의 일부로 이루어져 왔음.

El Mhamdi et al. (2017)	Gender differences i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collective violence, and the risk for addictive behavi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Tunisia
Campbell et al. (2016)	Associations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High-Risk Behaviors, and Morbidity in Adulthood
Hughes et al.(2016)	Relationships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ult mental well-being: Results from an English national

	household survey
Dunne et al.(2015)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Asia Pacific region: The situation is becoming clearer
Ahn Tran et al. (2015)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in Eight Provinces of Vietnam
Tran et al.(2015)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in eight provinces of Vietnam
Su et al.(2015)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blood pressure trajectories from childhood to young adulthood the georgia stress and heart study
Peek-Asa et al.(2015)	Prevalence, impact, and approaches to prevention for global adverse childhood events
Bellis et al. (2015)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ssociations with health-harming behaviours in young adults: surveys in eight eastern European countries

○ 향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Violence Against Children Surveys (VACS), The National Survey of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NatSCEV) 등으로 고려할 수 있음

○ Michael Dunne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ACE-IQ 연구를 지원해왔으며,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ACE-IQ를 활용한 국제비교연구의 가능성 탐색.

<별첨자료>



## INTERNATIONAL WORKSHOP INVESTING IN CHILDREN: POLITICS, POLICIES, AND OUTCOMES

Madrid, 25th and 26th May 2017

2) Organised by European Social Policy Network (ESPanet)<sup>1)</sup>; Red Española de Política Social (REPS) and Institut de Govern i Polítiques Públiques (IGOP/UAB)

Coordinator: Margarita León, (UAB)  
Research Assistants: Alejandra Peña (PhD, UAB) and Gabriela Carvalho (PhD, UAB)

### Thursday, May 25th – Sala de Prensa

09:00 h            **OPENING** (Margarita León *Autonomous University of Barcelona*)

09:15 h

**1<sup>st</sup> PLENARY: CHILDREN'S AGENCY AND THE SOCIAL INVESTMENT AGENDA**

Speakers:

**Policy developments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 Mary Daly, *University of Oxford*
- **Social Investment and its critics**
- Anton Hemerijck,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  
Chair: Elin Peterson, *Stockholm University*

10:45 h            **COFFEE BREAK**

11:00 h

**1<sup>st</sup> PANEL: INEQUALITY AND INTERGENERATIONAL EQUITY: INVESTMENT IN THE EARLY YEARS**

Speakers:

**Inequalities in the early years: ethnicity, disability and family background**

- Lucinda Platt, *LSE*

■  
**Intergenerational transfers: pro-elderly welfare states in a child-oriented Europe**

- Pieter Vanhuyse, *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Equality of opportunity and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in search for alternatives**

- Christian Morabito, *Save the Children Europe and UNESCO International*

Chair: Héctor Cebolla, *UNED, Madrid*

**13:00 h LUNCH BREAK**

14:30 h

**2<sup>nd</sup> PLENARY: INEQUALITIES AND PUBLIC INVESTMENTS IN EARLY CHILDHOOD**

Speakers:

**Welfare states and child poverty. What can be done?**

Bea Cantillon, *University of Antwerp*

**Obstacles to childcare for disadvantaged children**

Giuliano Bonoli, *University of Lausanne*

Chair: Rossella Ciccia, *Queen's University Belfast*

**16:00 h COFFEE BREAK**

16:30 h

**2<sup>nd</sup> PANEL: DOES DIVERSITY MATTER? UNDERSTANDING CHILDCARE CONTEXTS, POLICY DESIGNS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Speakers:

**Childcare provision and the Matthew effect**

Wim Van Lancker, *Universiteit Antwerpen*

Emmanuele Pavolini, *Macerata University*

**Childcare policies in Europe: the capabilities approach**

Mara Yerkes, *Utrecht University*

Jana Javornick, *University of East London*

**Childcare provision in segmented labour markets**

Costanzo Ranci, *Politecnico Milano*

Stefania Sabatinelli, *Politecnico Milano*

Margarita León, *UAB*

Chair:

Teresa Martín, *CSIC*

**20:00 h SOCIAL DINNER**

## Friday, May 26th –tba

This half-day session is oriented towards empirically-lead discussions on childcare and interventions in the early years. Specific attention will be given to the Spanish context and its territorial complexity although within a comparative framework and broader academic debates.

### 9.30-11.30h Guiding topics for discussion:

- Inequality, child poverty and issues of redistribution
- Intersecting and intergenerational inequalities
- Equal opportunities for vulnerable children

Chairs: Pau Mari-Klose and Leire Salazar

### 11.30-11.45h Coffee Break

### 11.45-13.30h Guiding topics for discussions:

- The politics of investing in children/public opinion.
- Different forms of governance and impact on access and quality of childcare
- Access to childcare (efficiency of targeted versus universal programmes)
- Quality of childcare and early years education

Chair: Margarita León

### Speakers, Chairs and discussants:

■ Giuliano Bonoli, <i>University of Lausanne</i>	■ Christian Morabito, <i>Save the Children and UNESCO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i>
■ Bea Cantillon, <i>University of Antwerp</i>	■ Emmanuele Pavolini, <i>Macerata University</i>
■ Héctor Cebolla, <i>UNED, Madrid</i>	■ Elin Peterson, <i>Stockholm University</i>
■ Rossella Ciccía, <i>Queen's University Belfast</i>	■ Lucinda Platt, <i>LSE</i>
■ Mary Daly, <i>University of Oxford</i>	■ Costanzo Ranci, <i>Politecnico Milano</i>
■ Daniel Gabaldón, <i>UV</i>	■ Stefania Sabatinelli, <i>Politecnico Milano</i>
■ Anton Hemerijck, <i>European University Institute</i>	■ Leire Salazar, <i>UNED</i>
■ Jana Javornick, <i>University of East London</i>	■ Olga Salido, <i>UCM</i>
■ Margarita León, <i>UAB</i>	■ Pieter Vanhuysse, <i>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i>
	■ Wim Van Lancker, <i>Universiteit Antwerpen</i>
	■ Mara Yerkes, <i>Utrecht University</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au Mari-Klose, <i>UNIZAR</i></li> <li>■ Teresa Martín, <i>CSIC</i>;</li> </ul>	
--	--

Accepted Participa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iclas Beinborn, <i>German Research Institute for Public Administration</i></li> <li>■ Gülçin Beken, <i>Gumushane University</i></li> <li>■ Gojko Bezovan, <i>University of Zagreb</i></li> <li>■ Ruta Braziene, <i>Lithuanian Social Research Centre</i></li> <li>■ Mammie Camara, <i>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Gambia</i></li> <li>■ Inés Campillo, <i>Suffolk University</i></li> <li>■ Gabriela Carvalho, <i>UAB</i></li> <li>■ Alec Curtis, <i>UAB</i></li> <li>■ Axelle Devaux, <i>RAND Europe</i></li> <li>■ Ana Arriba González de Durana, <i>Universidad Alcalá de Henares</i></li> <li>■ Gabriel González-Bueno Uribe, <i>UNICEF Spanish Committee</i></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nita Halasz, <i>Central European University of Budapest</i></li> <li>■ Gabriela Jorquera, <i>European Antipoverty Network in Spain</i></li> <li>■ Eloi Mayordomo Martínez, <i>Diputació Barcelona - Universidad de Zaragoza</i></li> <li>■ Erik Neimanns, <i>University of Konstanz</i></li> <li>■ Alejandra Peña, <i>UAB</i></li> <li>■ Salvador Pérez Moreno, <i>University of Malaga</i></li> <li>■ Jeong-Hee Ryu, <i>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i></li> <li>■ Antonino Sorrenti, <i>University of Milan</i></li> <li>■ Enkeleida Tahiraj, <i>LSE</i></li> <li>■ Özgün Ünver, <i>University of Leuven</i></li> <li>■ Merve Uzunalioglu, <i>Development Analytics Turkey</i></li> </ul>
--	---